

소망

신윤식

삶의 숲 어디에서나  
바람에 쓸리는  
들풀 사락거리듯  
소리 없이  
늘 사랑으로 오시는 분

영혼의 출입구엔  
감사의 호흡만이  
허락한 만큼의 모습으로  
들고 날고  
들고 날고

내게 오신  
그분 바라보며  
모든 악함 덮어주신  
신비한 은혜로  
오늘 주신 하루에  
고마워할 줄 아는  
작은 소망 하나가  
내 삶의 길에서  
늘 힘이 되었으면



제23권

40

2015년 10월 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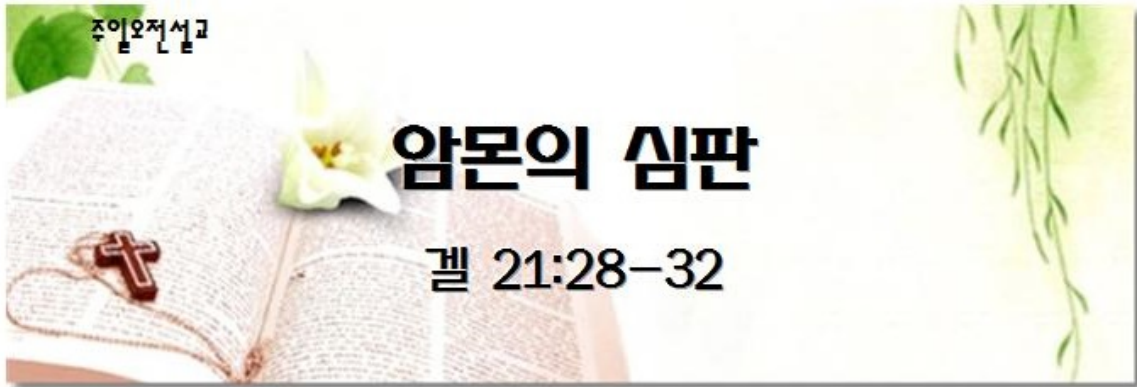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사55:8)

 **은석교회**  
GOSPEL EUNSEOK CHURCH  
[www.onlycross.net](http://www.onlycross.net)

담임목사  
신 윤 식  
시무장로  
이영민 이성희  
협동장로  
조규현

**MATTHETES**

대구광역시 북구 구리로 38길 7-12 ☎ 421-9049 070-8714-9049 010-3323-9049 sys5806@hanmail.net



지난주에는 바벨론 왕이 암몬과 예루살렘으로 나눠지는 갈림길에서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피는 방식으로 신의 뜻을 묻는 점을 쳐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점괘를 얻어 예루살렘을 치게 된다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바벨론 왕은 자신이 얻은 점괘를 자신이 섬기는 신의 뜻으로 여겼지만 하나님 외에 신이 없음을 생각해 본다면 바벨론 왕이 얻은 점괘에까지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셨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왕이 점을 치고 얻은 점괘대로 자신들을 공격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막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굳이 그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일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바벨론 왕처럼 신의 뜻을 묻고 신의 뜻대로 행하면 만사가 형통하다는 사고방식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점을 치고 얻은 점괘대로 하면 잘 될 것이라고 믿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 수준은 세상 사람이 점을 치는 것과 다를 바 없었

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당이나 점쟁이의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모두 거짓말로 치부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기에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신자는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면 안된다는 교육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용한 무당이나 점쟁이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안에 힘든 일이 발생했고 꼭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주변에서 그런 문제를 아주 잘 알아맞히고 해결해주는 용한 점쟁이가 있으니 가보자고 한다면 아무 갈등 없이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 점쟁이를 찾아가지 않는 것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신앙을 지킨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점쟁이에게 가보자는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고 신앙을 지켰다고 여기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주일 오후 설교에 에베소서를 말씀드리면서 6장에서 언급되는 마귀의 간계에 대해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는 신자로 하여금 점쟁이에게 가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점쟁이에게 가지 않음으로 자신이 신앙을 지켰다고



믿게 하는 것일까요?

마귀의 관계는 신자로 하여금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점쟁이에게 가려는 마귀의 유혹을 뿌리쳤다고 생각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현실을 잊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늘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힘으로 자신의 삶과 신앙을 책임지려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점쟁이에게 갔든 가지 않았든 죄인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점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용하다고 소문난 점쟁이가 점괘를 가지고 여러분의 현재와 앞일을 예측하고 그 예측대로 맞는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점쟁이에게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야 하겠습니까?

점쟁이의 관심은 인간의 존재로 향해 있습니다. 점괘를 이용하여 인간의 존재를 굳게 세우고 복되게 하는 길을 말해주는 것이 점쟁이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는 이유라면 모든 인간은 자신에게 무당과 점쟁이를 두고 산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조차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수단으로 하여 자기 존재를 복되게 하고 굳게 세우고자 한다면 무당, 점쟁이와 다를 바 없음을 심각히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현재의 삶의 형편을 기준으로 신앙과 복의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것은 큰 착각임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은 암몬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칼은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암몬은 바벨론의 칼을 피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무너져 갈 때 암몬은 그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신이

자기들을 지켜주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암몬에도 신이 있고 신에 대한 생각은 모든 인간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암몬에 대해서도 “인자아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 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28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뽑힌 칼은 예루살렘으로만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암몬에게로도 향해 있었습니다. 29절에 보면 “네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네게 대하여 거짓 복술을 하는 자가 너를 중상 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고 말합니다.

암몬에도 환상을 말하고 복술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암몬의 복술가들은 어쩌면 바벨론이 전쟁을 위해 길을 나섰을 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암몬으로 올 것인가를 두고 점을 쳤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점괘가 암몬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나왔다면, 그리고 그들 점괘대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것을 봤다면 분명 자기들의 신이 자신들을 지켜주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환상이며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는 사고에서 나는 무사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암몬을 향해서도 칼을 뽑으셨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현재의 강함과 성공과 풍족함으로 삶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무너지는 현재만을 생각한다면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온 백성은



홀어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암몬은 바벨론 왕의 점괘 때문에 당장은 위기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립니다. 바벨론은 강자의 자리에서 부요를 누리며 주변의 나라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현재만을 보면 예루살렘이 가장 비참한 처지에 있고, 암몬이나 바벨론 등 주변의 나라들은 예루살렘이 그들의 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거나 하나님이라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롱을 받기도 하겠지만 실상은 암몬이든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이든 하나님의 칼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현재의 고통과 부요를 기준으로 신과의 관계를 판단하려는 것은 참된 미래에 대해서는 간과한 것이 됩니다. 즉 땅에서 육신으로 존재하는 것만 생각할 뿐 영으로 사는 생명의 세계에는 관심 두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좋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현재가 나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옳고 그름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현재의 보이는 것들이 일종의 점괘처럼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현재가 좋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쁘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재 되어진 일들을 점괘처럼 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2004년에 발생한 인도양 쓰나미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23만여 명이 숨진 재난으로 인류 역사상 최대 재난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한국의 모 목사는 쓰나미로 크게 피해를 입은 지역은 모두 우상을 섬기는 곳이라며 쓰나미가 일어난 것은 우상을 섬기고 예수를 믿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설교를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는 암몬이 예루살렘을 바라본 것처럼 쓰나미

피해 지역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한국이 아니라 인도양으로 향한 것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한국의 주변 나라인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큰 재난이 많았습니다. 특히 일본은 지진과 해일 등의 재난을 자주 겪습니다. 그 재난을 보면서 누군가는 일본이 우상을 많이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린 심판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고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받는 벌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재난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암몬을 향한 심판 선포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자체가 하나님이 뽑은 칼 아래 있고 그 칼을 피할 곳은 아무데도 없음을 생각한다면 현재의 평안을 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평안으로 인해서 자신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심판에 대해 무감각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31,32절을 보면 **“내가 내 분노를 네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네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니 다 네가 불에 삶과 같이 될 것이며 네 피가 나라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네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실상입니다. 암몬도,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겉으로는 강하고 부요한 바벨론도 실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미국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부요한 나라가 되었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기독교 국가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변의 나라가 재난을 겪는데 내가 존재하는 곳은 무사할 때 기독교인들은 쉽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육신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일 뿐입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이 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하는 것처럼 타인이 고통을 겪을 때 자신은 평안을 누리는데 은혜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다가 평안이 사라지고 고통이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떠났다가 다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먼지와 같은 우리를 사랑으로 불드시고 생명이 있게 하신 은혜이기에 신자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통과 평안으로 은혜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육으로 사는 것일 뿐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평안을 누리던 암몬도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던 강하고 부요한 바벨론도 역시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처럼 죄 아래 있는 모든 존재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있습니다. 암몬이든 바벨론이든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는 존재는 심판이 전부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은 은혜로 이끌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죄를 보여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그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한 것임을 아는 길로 이끄시기 위해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고통이고 저주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랑을 아는 백성으로 완성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삶은 은혜를 담아 보게 하는 통로입니다. 고통이든 평안이든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기에 신자는 자신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남겨야 하는 길을 가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잘 살고 못사는 것에 매이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육신이 아니라 진리를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알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신자가 말씀으로 사는 것은 뭔가를 지키고 행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은혜만 남는 것으로 증거 되는 것입니다. 고통에서도 은혜만 남고 평안에서도 은혜만 남는 것입니다. 때문에 은혜든 말씀이든 육신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육신에 대입하여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해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과 육신의 간격만 벌어질 뿐입니다. 말씀은 육신을 흠으로 규정합니다. 흠이 어떻게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눈 뜨게 하시고 모든 삶이 은혜와 사랑 안에 있음으로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잘되고 못되는 것이 삶의 전부가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비록 현재가 어려움이고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은혜로 끌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남기기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이 믿음의 내용으로 자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타인이 힘든 일을 겪을 때 자신은 평안하다는 것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아는 것이 현실의 의미에 눈 뜬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육신의 풍요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주일오후설교

(9.13일 설교 81강)

## 씨름의 상대

### 엡 6:10-13

세상이 생각하는 종교적 삶은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만약 착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부처를 믿는다 하면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목사, 신부, 승려에게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착함입니다. 착하게 살지 못한다면 목사, 신부, 승려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착함이 소위 성직자의 자격 기준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난 '김수환 추기경' '성철 승려' 를 말할 때도 세상은 착함을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착했다' 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기독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착하게 살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 신자다운 것이고 착하지 못하고 이웃을 해롭게 하고 악을 행하는 것은 신자답지 못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싸움을 착하게 사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가령 바쁘게 지하철을 타기 위해 지하도를 내려갈 때 할머니 한분이 무거운 짐을 지고 계단을 내려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면서 '내가 기독교인인데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것이 신자다운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 주면 웃이 더러워 질 수 있고 내 길이 늦어질 수 있

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갈등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후자의 경우를 마귀의 유혹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짐을 들어드리는 착함을 행하는 것이 곧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것처럼 착함을 실천하는 것이라면 매일 지하도에 서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기다려야 할 것이고, 이웃을 도와줄 일이 없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실천은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그것이 곧 지난 설교에 말 씀드린 마귀의 간계입니다.

마귀의 간계는 속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마귀의 간계에 속는 것은 착한 일을 하고 종교적 활동에 열심을 내는 것으로 자신을 신자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임으로 신자를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눈먼 자 되게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고 말합니다.

씨름은 싸움을 뜻합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싸움의 상대자는 혈과 육, 즉 사람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이 싸움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이고 이는 악한 날에 원수를 대항하여 싸워 이



기고 모든 일을 완성한 후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바울의 말입니다(13절).

이처럼 신자의 싸움에 대한 바울의 말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착하게 살기 위한 싸움이 없습니다. 온 힘을 다해 착하게 생활해서 주위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은 정말 착하다. 범 없이도 살 사람이다. 기독교인답다'는 칭찬을 받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신자에게 있어야 할 참된 싸움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것이고 마귀의 간계에 빠진 것일 뿐입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특별한 행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특별한 행함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특별한 행함을 믿음의 증거로 생각하고 특별한 행함이 있어야 신자다운 것으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극히 평범하고 사소하게 여겨지는 삶은 마치 믿음과 상관없는 것처럼 대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주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신앙의 긴장감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특별한 실천을 요구해야 실천을 위해 열심을 내고 긴장하면서 자신이 신자로 살고 있음을 조금이라도 실감할 수 있을 것인데 그냥 믿음으로 살면 된다고 하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삶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과 특별한 행함을 실천하는 것과 어느 것이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삶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특별한 행함은 신자로 인정될 수 있는 행함, 몇 가지만 실천하면 되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모든 삶이 믿

음을 담아내는 그릇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행함으로 자기 부족을 채우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자기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행함이 아니라 특별한 행함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행함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는 악한 영의 간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러한 악한 영의 간계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악한 영을 상대하는 싸움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과 싸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행함이 없다고 생각되면 불안감을 갖습니다. '행함이 없는데도 과연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에 붙들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간계이며 유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의 간계, 유혹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를 갈 수 없는 여건을 조성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 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게 하며 자신에 대해 불안감을 갖거나 만족과 몇뼘함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기에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현대교회는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것은 물론이고 마귀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인간이 자신의 윤리와 도덕과 종교상과 상식에 맞는 하나님을 조립해 내는 것처럼 마귀에 대해서도 인간의 전통과 상식에 맞는 마귀를 조립해 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마귀의 간계이며 신자는 이러한 마귀의 간계에 대항해야 할 싸움에 부름 받은 군사인 것입니다.

마귀의 간계 앞에서 신자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선택이란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행함이 아니고 선택이란 방식으로 구원하시는 것일까요? 선택이라는 방식의 구원으로 인해서 마귀의 정체가 폭로되기 때문입니다.

에덴동산에 나타난 마귀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마귀의 본성 아래 있게 하고 자신을 세우기 위해 사는 존재로 전락시켰습니다. 이러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것에 분노하고 아벨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노골적으로 도전하는 마귀의 속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처럼 마귀의 통치 아래 있는 인간은 구원도 자신의 공로가 개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이 모두가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면 열심히 행한 사람은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인 선택에 대한 도전이고 이러한 도전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서 여실히 드러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이란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너희의 행함은 의로운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떤 행함도 구원에 있어서 효율적인 조건이 될 수 없으며 다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의가 되어 구원 받게 한다는 사실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의로 우심을 믿는 것이지 착함이나 특별한 행함을 요구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신자의 싸움, 즉 마귀의 간계에 대항하는 것은 자신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모든 삶에서 나타나야 할 영적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위해 신자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

해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신자입니다. 이러한 신자 됨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행함을 근거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엨 1:4-6절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이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 전에 택했다는 것은 '구원은 이미 예정되었으니가 구원은 걱정 말고 마음대로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창세 전의 택함은 인간이 존재하기 전이란 뜻이고 따라서 인간의 어떤 행함이 있기 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행함이 조건이 된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이나 의를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신자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믿음이 좋은 자가 되어야 하는 싸움이 아니고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의로운 행함을 실천해야 하는 싸움도 아닌 것입니다. 신자의 싸움은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한 영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악한 영의 속성은 하나님의 행하심과 열심은 무시하고 자신의 행함과 자기 열심에 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신자가 악한 영에게 대적하고 굳게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수요일설교

(9.30일 설교 70강)

## 에서의 분노

### 장 27:41-46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겼다고 생각한 에서가 분노합니다. 41절에서 말한 것처럼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 야곱을 죽이겠다고 마음먹을 정도로 야곱에 대한 미움은 컸습니다. 이삭도 곧 죽을 것이니까 야곱을 죽이는 일에 누구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서의 마음을 눈치 챈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 하란으로 가서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의 집에서 에서의 분이 풀리기까지 있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접하게 되면 '야곱이 나쁜다. 아니다. 어리석은 에서가 잘못이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잘잘못을 따지고 판단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인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알아가는 신자라면 에서에게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야곱에게서도 역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를 알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자가 진리를 알아간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거나 복음의 지식을 많이 알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타인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던 눈을 자신에게로 돌리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곧 나고 에서가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나쁜 놈이라면 자신이 곧 나쁜 놈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에서가 어리석은 놈이라면 자신이 바로 어리석은 인간밖에 되지 않는

다는 자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된 신자는 누군가를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판단하는 그가 바로 나 자신이고 나 또한 주께로부터 판단 받을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진리를 알아갈수록 '내가 악한 자이고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분노하는 것은 자신에게 이겨야 할 이삭의 복을 야곱이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즉 에서는 자신을 이삭의 복을 이어갈 자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삭의 장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에서에게 장자는 무엇으로도 바뀔 수 없는 질서였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든 형이 동생 되고 동생이 형이 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팔죽 한 그릇 받고 장자권을 팔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장자권을 판다고 해서 실제로 에서 자신이 야곱의 동생 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에서의 분노가 이해되십니까? 인간의 시각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속임수를 쓴 것은 야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접근하면 한가지의 사실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에서든 누구든 하나님께 복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서의 분노는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됨에 대해 생각하지 않은 순전히 아비의 복을 이어 받아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욕망대로 되지 않음에 대한 분노인 것입니다.

아곶이 속임수를 써서라도 이삭에게 축복을 받고자 한 것도 에서와 동일한 욕망에 의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에서도 아곶도 동일한 존재이고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욕망에 이끌려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에서의 분노는 나보다 더 잘 된 사람에 대한 우리의 시기와 분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진리를 아는 신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자신의 복을 위해 부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신다면 그 내용은 뭘겠습니까? 두말 할 것 없이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에게 최고의 축복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생명에 있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섬김으로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가 생명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에서와 아곶이 복중에 있을 때 서로 싸움으로 인해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 때 하나님은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다고 하시면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이상한 세계를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 에서와 아곶을 잉태하게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는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큰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세상과 반대된 이상한 세계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세계에서는 큰 자 되는 것이 복일까요 어린 자 되는 것이 복일까요? 섬김을 받기 위해 큰 자 되는 것이 세상의 욕망이라면, 큰 자로부터 섬김을 받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큰 자가 되지 못하고 어린 자로 존재한다 해도 섬김을 받는 복에 거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에서와 아곶이 이러한 복의 세계를 알았다면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 투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큰 자 되지 않아도 섬김을 받는 복의 세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에서의 분노는 하나님의 참된 복의 세계에 무지한 자의 분노인 것이고 아곶의 속임수 또한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정확한 의미는 큰 자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린 자인 우리를 섬기신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 외에 큰 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큰 자이신 예수님의 섬김으로 죄가 용서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으로 인해 우리가 누리게 된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의 큰 자, 작은 자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자로 여김 받는다 해도 예수님의 섬김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소유나 성공에 관심을 두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관심에 관심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나의 관심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악한 영



으로 사는 것입니다.

진리가 알게 하는 것은 이러한 우리의 실상입니다. 악한 영으로 살아가는 나의 실상을 보게 하심으로 감히 큰 자이신 예수님의 섬김을 받을 수 없는 나를 섬기신 예수님의 사랑만 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는 누군가의 믿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도 더 악한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신자입니다.

신자의 인생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더 채워야 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완성된 충만한 인생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욕망은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충만한 삶으로 끌어잡니다. 이러한 욕망을 포기시키며 예수님이 곧 기쁨이고 충만이고 감사임을 알게 하고 증거 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결국 신앙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기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에 대해 헛된 환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대해 하나님이 행위대로 갚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심판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섬기심으로 생명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를 바라보면 무엇 하나 성에 차지 않을 것입니다. '남들을 잘 사는데 왜 나는 이것 밖에 안되냐'라는 불평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이 같은 불평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별 것 아닙니다.

때문에 내 믿음으로 살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우리의 불평과 분노가 다스려지게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끌려가는 자이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을 증거 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존재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내가 큰 자 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지금 보다 더 큰 자 되는 것으로 은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복을 빼앗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에서를 분노하게 한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복이 야곱에게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빼앗겼다고만 생각한 것입니다. 이삭의 축복이 본래 에서의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자신을 복을 이어 받을 자로 여김으로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많은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뭐가 주어져 있든 그것은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이고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이 주어져 있다 해도 그 모든 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보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안에서 복이라고 할 수 있는 땅의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섬김 아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축복으로 다가올 뿐입니다. 이 은혜로 감사하게 되는 그가 땅의 것으로 인한 불평과 분노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 예배시간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30분

수요일예배 오후 7시30분

어린이예배 주일오후 1시10분

중등부예배 주일오후 1시10분

금요기도회 오후 7시30



### (자비나무)

### 오늘의 말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단 3:16-18)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전 예배

11:00

인도 :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9장**  
교 독 문 **41(시97편)**  
기 도 **이성의 장로**  
찬 송 **216장**  
성경봉독 **겔 21:28-32**  
찬 양 **성가대**  
설 교 **신윤식 목사**  
**암몬의 심판 (48강)**  
기 도 **설교자**  
찬 송 **95장**  
교회소식 **이영민 장로**  
\*찬 송 **7장**  
\*축 도 **설교자**

다음주일기도 : 송홍인 집사

\*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오후 예배

14:30

인도 :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254장**  
기 도 **박영선 집사**  
찬 송 **540장**  
성경봉독 **렘 6:21-24**  
설 교 **신윤식 목사**  
**은혜가 있을자이다 (84강)**  
기 도 **설교자**  
찬 송 **301장**  
주기도문 **다같이**

다음주일기도 : 이애림 집사

### 수요일예배

19:30

인도 : 신윤식 목사

창세기 71강

## 은석소식

1.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감각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기 생각에 맞추어 이해하려고 하고 자신의 감각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생명의 주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존재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2. 예배 후에 제직회 모입니다.
3. 신윤식 목사는 9일부터 14일까지 중국에 다녀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주성교회(시흥) 김영대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십니다.